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7.7.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탈원전 · 4대강 복원...‘답정너’式 정책추진”
(7.20, 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- 이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신고리 5,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
-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도 ‘탈원전’을 주장해 온 학자출신이라는 점에서 탈원전정책 사회적 합의는 ‘요식행위’에 불과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당초 신고리 5.6호기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은 중단이었지만, 현재는 공론 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, 오히려 밀어붙이기 방식과는 전혀 다름
- 또한,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, 설명회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을 충분히 거칠 계획이고,
 - 신고리 5.6호기 공론화 절차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, “요식 행위”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(044-203-5320)